

## 3년제 보건계학과의 효율적 운영방안

대전보건전문대학 임상병리과 · 방사선과\* · 물리치료과\*\*

조경진 · 박영선\* · 박지환\*\*

### The Efficient Managements of 3-Year Allied Health Departments

Cho Kyung-Jin, Park Young-Sun\*, Park Ji-Whan\*\*

*Dept. of Medical Laboratory Technology, Radiological Technology\*, Physical Therapy\*\*,  
Taejon Medical Junior College*

#### - ABSTRACT -

Most of the Medical Junior Colleges faced new environmental changes: School years of some Health-related departments were extended from two-year program to three-year ones; The total high school graduates willing to apply to the colleges will fall short of the legal number limits of this country; Government's educational opening policies enables competitive foreign schools to land in our country more easily.

In order to survive under these turbulent circumstances, any junior college has to cultivate it's own competitiveness establishing strategies and utilizing resources very efficiently.

Some of the major points extracted from three-year junior college professors' opinions against the environmental changes are as follows,

1. Environmental changes should be fully appreciated. And junior colleges have to make haste to establish strategies placing priorities on specific fields which are their own strengths compared to others.
2. The criteria of provisions of ministry of Education on the facilities and equipments should be enhanced.
3. The practical way to use available resources effectively is to make the best of human resources.
4. It is time to consider consolidating akin departments to one.
5. The school year of the health-related departments should be extended to four years to meet the contemporary needs in the medical fields.

Key words : Health-related Departments, Efficiency

## I. 서 론

요즈음 대학에 진학할 절대인구 수가 점차 감소해 가면서 서기 2000년경에는 대학의 입학정원은 대학에 진학할 고교졸업생의 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교육개방으로 분교설치를 조사하고 있는 외국의 대학들도 있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1996년부터는 '전문대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교명 사용이 보다 자유롭게 변화하는 움직임이나 기업체들이 부설대학의 설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 등 전문대학 주변과 교육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얼마 전부터 전문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로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고교 졸업자들의 경우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학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대학을 이미 졸업하였던 사람들 중에는 취업이 잘 되거나, 단독으로 개업이 가능하거나, 특정의 기술을 익힌후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대학의 특정학과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우기 전문대학의 보건계학과인 경우, 1991년 부터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가, 그리고 1994년 부터는 치기공과, 치과위생과와 같은 보건 의료기술 관련학과의 수업연한이 이미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렇듯 전문대학의 주변에서는 생존에 위협적(threatening)인 환경변화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전문대학들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opportunities)를 제공하는 환경변화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의식해서 인지 몇몇 대학에서는 벌써 경쟁능력을 갖추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하여 커다란 비용을 들이면서 까지 대학 홍보를 시도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시작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기도 한다.

그런데 점차 심화되어갈 경쟁에 뒤지지 않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연

적으로 시설이나 재원의 확충이 선결문제가 될 터인데,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 들은 수없이 쌓여 있고 그를 위한 비용부담 또한 엄청나게 클 것이다.

특히 그 재정상태가 아주 양호하지 못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필요 재원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야 하는 보건의계 중심의 많은 전문대학들로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대처해나가야 하는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 인력, 시설·장비, 교과운영과 관련하여, 자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쉽게 눈에 들어 온다.

여기서 전국 전문대학 보건계학과 교수들과 전국 전문대학 교무처장, 교무과장을 대상으로 교과운영, 시설·장비 등에 대한 각 대학의 상황이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학 운영상 중복 또는 낭비와 같은 비효율적이며 비합리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그 개선점을 찾아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전략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설문조사 대상으로는 1994년 말 현재 전국 전문대학의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교수 285명 전원과 전국 133개 전문대학 교무과(처)장 전원으로 하였다.

### 2. 조사방법

199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간에 걸쳐, 우선적으로 대학문화사 발행 '진학연구'의 전문대학 주소록과 보건계열 학과 교수수첩을

이용하여 교수명단과 학교주소를 확인하였다.

대상을 둘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였기 때문에 보건계열 학과 교수와 전국 전문대학 교무과(처)장을 각각 대상으로 한 서로 다른 내용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마련하였다.

설문방법으로는 회신용 봉투를 동봉한 설문지를 보건계열학과 교수 전원과 전국 전문대학 교무과(처)장 전원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수하였다.

### 3. 조사 내용

보건계열 교수들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는 응답한 교수들에 대하여 소속된 대학의 일반적 특성, 소속학과와 직급, 학과운영에 대한 의견, 시설, 장비, 구매, 종합관리체제에 대한 의견, 교과에 대한 의견, 연구여건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 현장실습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한편, 교무과(처)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소속대학의 일반적 특성,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홍보전략 방안,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4. 분석방법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에서는 통계 패키지인 SPSS/PC<sup>+</sup>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 과

### 1. 보건계학과 교수 대상 조사결과

#### 가. 표본의 일반적 특성

전국 3년제 보건계학과 교수 285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총 125명으로 응답률은 43.85%이었다. 응답자 소속 대학들의 운영주체별, 설립년도별, 학생규모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 1) 운영주체별

응답자 소속대학을 운영주체별로 분류한 결과, 국공립 대학은 단 한 학교도 없었으며, 종교계 설립 대학에 22명(17.6%), 그리고 사립 대학에는 103명(82.4%)으로 대부분이 사립대학 교수들이었다.

#### 2) 설립년도별

소속대학들의 설립년도는 1956년부터 1992년까지이었으며, 특히 1970년대 설립된 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96명으로 전체의 76.8%이었고, 대학들의 평균 연령은 21년의 역사를 지닌 대학들이었다.

#### 3) 학생규모별

소속대학의 1995년 1학기 등록학생 수는 1,200명부터 6,500명으로 평균 3,566명이었으며,

표 1. 응답자 소속대학 들의 특성별 분포

단위 : 학교(%)

운영주체 별	설립년도 별	총학생수 별	'90 대비	'95 학생수			
국 공 립	0( 0.0)	~1969	19(15.4)	~1999	8( 6.4)	~ 99	3( 2.9)
종교단체	22(17.6)	1970~1979	92(74.8)	2000~2999	26(22.2)	100~199	84(82.4)
사 립	103(82.4)	1980~	12( 9.8)	3000~3999	40(34.2)	200~299	13(12.7)
				4000~	43(36.8)	300~399	1( 1.0)
						400~	1( 1.0)
	125(100.0)	123(100.0)		117(100.0)			102(100)

최근 5년 동안의 학생수 증가로 대학의 발전을 나타내 보고자 1990년 1학기 학생수를 기준으로 비교 해본 결과, 최소 0.7로 오히려 학생수가 감소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무려 5.5배까지의 신장을 보인 대학이 있는 등 응답한 교수들이 속해 있는 대학들은 최근 5년간 등록학생의 수가 평균 1.51배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응답자의 과별, 직급별 분포

응답자의 학과별 분포를 보면 임상병리과 42명(33.6%), 방사선과 24명(19.2%), 물리치료과 24명(19.2%), 치기공과 21명(16.8%), 치위생과 14명(11.2%)이었다.

직급이 확인된 사람은 98명으로 그들의 직급별 분포를 보면 교수 9명(9.2%), 부교수 29명(29.6%), 조교수 34명(34.7%), 전임강사 26명(26.5%)으로 조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 다. 학과운영에 대한 의견

##### 1) 학과정원

학과정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폭증원을 요구하는 교수는 전혀 없었으며, 약간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가 17명(13.6%), 현재의 정원이 적당하다는 교수는 60명(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원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교수들도 48명(38.4%)로 상당한 수이었으며, 특히 정원 감축을 원하는 교수들 중에는 임상병리과 교수들이 기타 과의 교수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았다(표 3).

##### 2) 야간부 개설

응답자의 소속학과에 야간부가 개설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야간부가 개설된 학과에 소속된 교수가 33명(26.6%), 야간부가 개설되지 않은 학과 소속교수가 91명(73.4%)이었는데, 아직 개설되지 않은 학과에 소속

표 2. 응답자들의 학과별, 직급별 분포

단위: 명(%)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계
교수	4	3	2			9(9.2)
부교수	8	9	7	3	2	29(29.6)
조교수	5	8	5	12	4	34(34.7)
전임강사	3	4	10	6	3	26(26.5)
계	20	24	24	21	9	98(100)

표 3. 소속 학과정원에 대한 각과 교수들의 의견분포

단위: 명(%)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계
대폭증원 필요	0	0	0	0	0	0
약간증원 필요	4	5	1	3	4	17
현재로서 적당	17	12	17	12	2	60
정원감축 필요	21	7	6	6	8	48
계	42	24	24	21	14	125

( $\chi^2 = 17.04$ )





체제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공동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한 교수가 46명(37.4%)인데 반하여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한 교수가 61명(49.4%)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임상병리학과와 방사선과 소속 교수들은 타과 교수들에 비하여 가능하면 공동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이 많았다(표 6).

### 5) 공동사용 가능 품목

보건계열에서 공동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답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한 교수가 50명(40%)으로 그 내용으로는 컴퓨터 및 프린터, 시청각 기재(OHP, projector, video vision), 시청각실, 복사기, 현미경, 원심분리기, 증류장치, autoclave, 화학천평, 분광광도계, 전기영동장치, 해부생리 실험실, 인체모형 등이었다.

### 6) 교육부의 시설투자 지원

학교시설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에 대해서 묻

는 질문에 전문대학 수준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고 답한 교수가 22명(17.6%), 적은 편이라고 답한 교수가 42명(33.6%), 그리고 아주 적은 편이라고 답한 교수가 58명(46.4%)이었다(표 7).

### 마. 교과에 대한 의견

교과운영에 있어서 현 3년제 교과과정, 합동강의 실시 가능 과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표 8).

#### 1) 3년제 교과과정 편성

시행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소속학과의 3년제 교과과정 편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개설할 과목이 많이 있다고 답한 교수가 21명(17.1%)인 반면, 잘짜여졌고 약간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수가 89명(71.2%)인 한편, 앞으로 보다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2) 합동강의

보건계열 학과의 중복과목을 위한 합동강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52명(41.6%)의 교수는 상황에 따라 합동강의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58명(46.4%)의 교수는 수업 분위기상 합동강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답하였다.

표 7. 전문대학의 시설투자를 위한 교육부 지원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명(%)

전문대학 수준으로 만족한다	1(0.8)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	22(17.6)
적은 편이다	42(33.6)
아주 적은 편이다	58(46.4)
계	124(100.0)

표 8. 교과운영에 대한 의견

단위:명(%)

3년제 교과과정 편성에 대한 의견	보건계 중복과목	합동강의 의견	합강실시 주요과목
추가개설할 과목 많다	21(17.1)	가능하다면 운영상 바람직	10(8.0) 공중보건학
잘 짜여졌고 약간의 수정 필요	89(71.2)	상황에 따라 실시	52(41.6) 의료법규
낭비요소 많아 축소조정 필요	4(3.2)	수업능력상 해서는 안됨	58(46.4)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통계학 의료보험 병리학
계	114(100.0)	계	120(100.0)

### 3) 합동강의 실시 과목

합동강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과목을 답하라는 질문에 있어서 74명(59.2%)의 교수들이 답한 과목 중 가장 많이 의견이 일치되는 과목들을 주로 살펴보면, 37명의 교수가 공중보건학을, 26명이 보건법규를, 19명이 해부학을, 16명이 생리학을 답하였고 그 외에도 통계학, 의료보험, 병리학 등도 포함되었다.

## 바. 연구여건 및 평가제도에 관한 의견

### 1) 교수의 연구여건

교수의 순수연구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보유 의 필요성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꼭 필요하다고 답한 교수가 51명(41.1%), 있다면 무척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교수가 72명(58.1%)이었다.

교수들의 연구 목적을 위한 교육부의 연구지원 수준에 대한 질문에 적은 편이라고 답한 교수는 27명(21.8%), 거의 없는 편이라고 답한 교수가 94명(75.8%)이었다(표 9).

### 2) 교수연구

평가제 전문대학에서 교수연구 평가제 실시에 대한 질문에서는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한 교수도 14명(11.3%)이나 되었으며, 서서히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46명(37.1%), 전문대학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답한 교수가 68명(48.4%)이었다.

그런데 이들을 다시 직급별로 나누어 보면 교수들 중에는 8명 중 5명이 교수 평가제의 실시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당수의 조교수나 전임강사 중에는 아직은 시기상조 또는 서서히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표 10).

## 사. 현장실습에 대한 의견

현장실습에 있어서 개선점이 있으면 답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54명(43.2%)의 교수가 응답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표 9. 교수연구 여건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순수연구를 위한 시설장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교육부 연구지원 수준에 대한 의견
꼭 필요하다	매우 만족한다
있다면 무척 큰 도움이 될 것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없어도 큰 불편은 없다	적은 편이다
	거의 없는 편이다
123(100.0)	124(100.0)

표 10. 교수평가제에 대한 직급별 의견

단위 : 명(%)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
조기시행이 바람직	5	3	2	3	13
서서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2	15	11	7	35
아직은 시기상조	1	11	19	15	46
계	8	29	33	25	94

( $x^2 = 25.91$ )



**1) 실습시간과 학점배정**

현장 실습의 시간과 학점배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10학점을 배정하였고 그 시간과 학점의 배정에 만족하는 교수가 83명(73.5%), 너무 많다고 답한 교수가 7명(6.2%), 시간과 학점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교수가 23명(20.4%)이었다(표 11).

**표 11. 현장실습의 시간과 학점배정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시간과 학점 등에 대체로 만족	83(73.5)
시간과 학점이 너무 많다	7( 6.2)
시간과 학점을 더 늘려야 한다	23(20.4)
계	113(100.0)

실습시간과 학점배정에 관한 의견들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가) 실습의 시간과 학점이 거의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실습비의 지급도 전국 전문대학이 학과별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임상 지도강사의 강사료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다) 충분한 실습을 위하여는 실습기간을 아예 1학기로 연장하여야 하며 학점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라) 학기 중의 실습을 아예 없애고 졸업 후의 인턴제가 바람직하다.

**2) 실습병원의 확보**

지역에 따라서는 실습병원의 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로 생각하는 교수가 많으며 그들은 대학 부속병원이 없다면 자매결연 형태의 실습병원이 확보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병원과 대학 간에 긴밀한 협의체제가 형성되어 산학협동체제가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교수들이 많았다.

**3) 임상실습 교육과 평가방법**

교육방법과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가) 임상의 지도교수에 대해서도 일정의 자격기준이 있어야 한다.

(나) 대학과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해 두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실습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적은 인원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토의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실습평가에서 10학점은 인정하되 Pass/Nonpass 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졸업 후 사항에 대한 의견**

취업지도를 위한 교내 부서의 활동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아직 활동이 미진하다고 답한 교수들이 88명(72.1%)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지도를 위한 전담기구가 아직은 없지만 곧 신설할 것으로 보는 교수가 19명(15.6%)이었다.

보건계열학과 졸업생을 위한 교육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것을 주장한 교수가 63명(50.8%),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빠른 시일 안에 4년제로의 승격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수가 51명(41.1%), 일반학사로의 편입기회 확충을 원하는 교수가 9명(7.3%)이었다(표 12).

**표 12. 교육연계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현재의 3년제가 적당	1( 0.8)
일반학사로의 편입기회 확장이 바람직	9( 7.3)
소정교육 후 전문학사 학위 수여가 바람직	63(50.8)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4년제로의 승격이 바람직	51(41.1)
계	124(100.0)

**2. 전국 전문대학 교무과(처)장 대상 조사 결과**

**가. 응답자 소속대학의 일반적 특성**

전국 133개 전문대학의 교무과장 또는 교무

표 13. 응답자 소속대학의 특성별 분포

단위 : 학교(%)

운영주체 별		설립년도 별		학생규모 별		'90 대비	'95 학생수
국 공 립	4( 5.9)	~1969	25(36.8)	~1999	26(37.7)	~ 99	3( 5.1)
종교단체	5( 7.5)	1970~1979	28(41.2)	2000~3999	21(30.4)	100~199	46(78.0)
사 립	58(86.6)	1980~	15(22.1)	4000~	22(31.9)	200~299	10(16.9)
계	67(100.0)	계	68(100.0)	계	69(100.0)	계	59(100)

처장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총 70명으로 응답률은 52.63 %이었다. 이들을 대학의 운영주체별, 설립년도별, 학생수규모별로 분포(표 13)와 야간부개설 여부 및 야간학생비율, 그리고 전임교수 수와 외래교수담당과목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운영주체별

교수들이 소속된 대학의 운영주체별로는 국공립은 4명(6.0%), 종교계통의 대학에 5명(7.5%), 사립대학에 58명(86.6%), 기타 3명(4.3%)으로 대부분이 사립대학에 소속되어 있었다.

2) 설립년도별

조사대상이 된 교무과(처)장이 소속된 대학들의 설립년도는 1903년부터 1994년까지였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많이 설립되었으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은 9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으로 볼 때 24년의 역사를 지닌 대학들이었다.

3) 학생규모와 5년전 대비 현재학생수

또한 소속대학의 1995년 1학기 등록 학생수는 최소 120명부터 최대 6,390명으로 평균 2,832명이었으며, 최근 5년 동안의 대학 발전을 학생수의 증가로 보고자 1990년 1학기 학생수를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최소 0.73으로 오히려 학생수가 감소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무려 7.4배까지의 성장을 보인 대학이 있는 등 표본 대학들은 최근 5년간 등록학생의 수가 평균 1.59배 성장하였다.

4) 야간부 개설과 야간학생의 비율

응답한 69개교 중에서 야간부를 개설한 43개교이었으며 이들 중 야간부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 8%에서 최대 76%로 평균 37%로 나타났으며, 43개 야간부 개설 대학의 야간학생 비율이 25% 이하인 경우가 11개교(25.6%), 26~50% 차지하는 경우가 19개교(44.2%), 51% 이상인 경우가 13개교(30.2%)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응답 대학의 야간부 개설여부와 야간학생 비율  
단위 : 학교(%)

야간부 개설 여부	야간부 개설대학 야간학생 비율 분포
예	43(62.3) ~25 11(25.6)
아니오	26(37.7) 26~50 19(44.2)
	51~ 13(30.2)
계	69(100.0) 계 43(100.0)

5) 대학의 전임교원 수와 외래교수 담당과목 비율

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인적자원으로서 전임강사 이상의

표 15. 응답자 대학의 전임교원 수와 외래교수 담당과목비율 분포  
단위 : (%)

전임교원 수(명)	외래교수 담당과목 비율
~49 27(39.1)	~25 21(32.3)
50~99 32(46.4)	26~50 39(60.0)
100~ 10(14.5)	51~ 5( 7.7)
계 69(100.0)	계 65(100.0)

교수의 수를 확인한 결과 응답한 대학에서의 전임교수의 수는 최저 5명에서 최다 142명으로 평균 59.8명이었으며 100명 이상인 대학이 10개교(14.5%)나 되었고, 외래교수 담당과목의 비율은 최저 8%, 최고 65%로 평균 32.8%이었으며 전체 과목의 26% 이상을 외래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43개교로 전체 대학의 67.7%를 차지하였다(표 15).

#### 나.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 1) 교육환경변화에 대한 의견

환경변화가 전문대학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심각하며 학생유치를 위한 장기계획이 시급하다고 답한 교수가 48명(6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향은 크지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답한 교수도 15명(21.4%)이나 되었다. 오히려 전문대학의 선호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기회(opportunity)로 보아야 한다는 사람도 5명(7.1%)이나 있었다.

소속 대학은 주변의 전문대학들과 경쟁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심각한 정도라고 답한 교수가 16명(22.9%), 심한 편이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답한 교수가 29명(41.4%), 주변의 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한 교수도 16명(22.9%)이나 되었다(표 16).

표 16.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명(%)

환경변화가 미치는 영향 평가		주변 전문대학과의 경쟁의식 정도	
매우 심각하여 장기계획 시급	48(68.6)	매우 심각한 정도	16(22.9)
영향은 크지만 염려할 정도는 아님	15(21.4)	심한 편	29(41.4)
별 영향 없다	2(2.9)	그저 그렇다	9(12.9)
오히려 유리한 기회가 될 것	5(7.1)	관심 없다	16(22.9)
계	70(100.0)	계	70(100.0)

#### 다. 전략방안

##### 1) 전략과 기획

교육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기획 담당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거의 모든 교수가 꼭 필요하다거나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으며, 전략수립의 필요성에도 동의하였다.

전략의 형태로서 가장 바람직한 전략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 특정계열의 특화전략으로 답한 교수들이 가장 많아 32명(50%)이었으며, 취업 향상으로 답한 교수가 24명(37.5%)이었다(표 17).

표 17. 대학발전을 위한 전략의 형태 단위 : 명(%)

대학내 특정계열의 특화전략	32(50.0)
학생 증원을 통한 발전전략	4(6.3)
추업을 향상 위한 전략	24(37.5)
계	60(100.0)

##### 가) 대학 발전을 위한 특화전략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특정학과를 특화시키려 할 때 적당한 학과를 답하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학과들이 거론되었다.

##### (1) 공업계

공업계열로서는 자동차관련 학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 (2) 보건계

안경광학, 간호, 임상병리, 치기공, 물리치료

표 18. 환경변화에 대한 홍보 필요성 인식과 실행 정도

단위 : 명(%)

현 시점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홍보 필요성의 인식 정도		홍보를 위한 노력 유무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투자를 할 때	25(35.7)	예	32(46.4)
시기와 장소에 따라 필요할 때 홍보에 투자	42(60.0)	아니오	37(53.6)
대학이기에 홍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	3( 4.3)		
계	70(100.0)	계	70(100.0)

과가 거론되었다.

(3) 기타

예능계열로 디자인과 등이 거론되었다.

2) 대학의 효과적인 홍보방법

홍보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적극적 홍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답한 교수가 25명(35.7%), 필요하다면 홍보를 위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답한 교수가 42명(60.0%)이었다.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이미 대학의 홍보를 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해왔다고 답한 교수가 32명(46.4%), 아니라고 답한 교수가 37명(53.6%)이었다(표 18).

한편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대학의 홍보를 위한 노력으로 효과적이었던 홍보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가) 대학의 메리트 강조

- 교육시설의 확충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유능한 교수진 확보
- 장학금 수혜폭의 확대
- 우수 실습시설 확보 등이었다.

나) 대학의 홍보방법

- 매스컴의 적극적 활용
- 홍보용 책자 발행
- 홍보전담기구의 활용
- 고교방문 홍보 등이었다.

다) 기타

- 산업체와의 유대강화
- 취업률의 향상 등이었다.

라. 효율적 운영방안

1) 교양과목 운영위원회

교양과목 운영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한 교수가 상당수 있었고 만약 교양과목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당한 사람을 추천하라는 질문에는 교무과(처)장, 교양과 교수, 교육학 전공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특별과정의 운영

대학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특별과정의 설치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특별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27개교(39.1%)이었으며, 특별과정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만족하고 있는 교수가 7명(26.9%), 보통이라고 답한 교수가 11명(42.3%), 좋지 않다고 보는 교수가 8명(30.8%)으로 나타났다(표 19).

마. 향후 대책 문제

향후 대책으로서 투자의 우선순위, 증과와 증원문제, 학과 통폐합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표 20).

1) 우선적 투자 순위

향후 대책 방안으로 투자계획 중 가장 우선적인 사항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교사신축이 가장 많아 25명(36.2%), 다음이 장비투자 21

표 19. 특별과정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대학내 특별과정 설치 여부/학교수		특별과정의 성과	
예	27(39.1)	매우 만족스러움	0( 0.0)
아니오	42(60.9)	만족하는 정도	7(26.9)
		보통	11(42.3)
		매우 좋지 않음	8(30.8)
계	69(100.0)	계	26(100.0)

표 20. 투자, 증원, 학과통폐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우선적 투자 순위	증원에 대한 의견		학과통폐합에 대한 의견		
교사신축	25(36.2)	대폭증원 필요	11(15.7)	고려대상이 될수 없다	8(11.4)
장비투자	21(30.4)	약간증원 필요	17(24.3)	차츰 생각해볼 문제	40(57.1)
연구투자	13(18.8)	현재 적당	42(60.0)	통합 고려할 때 왔다	20(28.6)
교수채용	8(11.6)	감원 필요	0(0.0)	기타	2(28.6)
기타	2(2.9)				
	69(100.0)		70(100.0)		70(100.0)

명(30.4%), 연구투자 13명(18.8%), 교수채용 방안은 8명(11.6%)으로 가장 낮았다.

### 2) 증과 증원 문제

새로운 학과나 학생 증원에 대한 교육부의 조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대책없는 증과 증원이라고 답한 교수가 44명(63.8%)으로 가장 많았는데 비하여 아직 증과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수도 14명(20.3%)이나 되었다.

### 3) 학과 통폐합 문제

학과의 통폐합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교수가 8명(11.4%)인데 반하여 차츰 생각해 볼 문제라고 답한 교수가 40명(57.1%), 통합을 고려할 때가 왔다고 답한 교수가 20명(28.6%)이었다.

## IV. 고 찰

### 1. 조사대상의 선정과 범위

3년제 보건계학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을 보건계 학과의 교수와 전문대학의 교무과(처)장의 형태로 둘로 나누고 설문 조사도 별도 실시하였다.

이는 보건계학과의 시설이나 장비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에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보건계열 학과 교수들에게 개별적으로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꼈으며, 또한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교무과장(처)에게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느껴 설문내용과 그 대상을 두 방향으로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

· 예상하였던 대로 장비와 시설 사항의 질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소속학과에 관련된 사항들만을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시설장비에 있어서의 임상과 대학간 수준의 격차

시설이나 장비 투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한 내용 중에는 보건전문대학의 수준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장비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대학의 학과들이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실제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대학에서 가능한 실험실습 수준을 비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 이유는 의학기술은 대부분의 다른 기술분야에 비하여 무척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임상에서는 최첨단의 고가장비나 시설들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임상수준에 맞추어 대학에서 실험실습 시설을 갖추어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의학기술의 도입에 따라 신속하게 변화해 가는 임상 시설수준의 상황을 아예 멀리하고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 졸업 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임상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보건계열의 전문대학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날이 발전해가는 의학기술을 어느정도 쫓아가면서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임상과 대학간의 시설수준의 격차를 다소라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최첨단 기술의 장비나 고가장비는 도입할 형편이 안되고 또한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고가의 시설이나 장비를 도입할 필요도 없다.

임상에서 수행되고 있는 아주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비로서 기능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가격면에서는 훨씬 저렴하면서도 시설장비의 기능이나 작동의 원리가 동일한 시설장비를 도입한다면 임상과 대학간의 시설 장비 수준의 커다란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장비 공동활용의 한계점

연구목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이었던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시설이나 장비의 공동사용을 조사 검토해 본 결과, 논문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시설이나 장비로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로는 오히려 쉽게 마련할 수 있거나 저가인 시청각설비나 자재 등 몇몇 종류들 뿐 이었고, 정작 중요하고 고가인

품목들로서 공동사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는 거의 없었다.

그 이유를 따져 본 결과 보건계열의 학과에서는 기술적인 특성이 각 학과마다 특이하고 세분되어 있어서 실제 공동으로 사용하고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고가의 주요장비는 거의 없을 수 밖에 없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합동강의 가능과목

현재 보건계열의 전문대학에서 합동강의에 대한 의견으로서는 응답한 교수의 절반 정도가 수업 능력상 해서는 안된다고 답하기는 하였지만, 어쨌던 합동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목들로는 공중보건학, 보건법규,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통계학, 의료보험, 병리학 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실험실습이 없는 과목들로 나타났다.

## V. 결 론

전문대학의 보건계학과외의 경우, 수업연한이 연장되고, 대학에 진학할 절대인구가 점차 감소해 가며, 교육개방으로 인한 영향 등 전문대학의 주변환경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아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책이나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보건계학과 교수들과 전국 전문대학 교무과(처)장을 대상으로 대학의 일반적 특성, 소속학과와 직급, 학과운영에 대한 의견, 시설, 장비, 구매, 종합관리체제에 대한 의견, 교과에 대한 의견, 연구여건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 현장실습에 대한 의견,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홍보, 전략방안,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하며,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대학내 특정계열을 특화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교사신축과 시설장비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계 학과의 자원활용 방안으로 장비나 설비의 도입이나 구매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부의 시설기준령 자체가 하루 빨리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신속한 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실 사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겠다.

자원의 활용방안으로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의 효율성은 보건계 학과의 국가고사 실시과목 특성이나 기술적인 특성 때문에 그 효율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보건계 학과에서는 큰 효과가 없는 시설이나 장비의 공동활용보다는 합동강의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공중보건학, 의료법규,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통계학, 병리학 등의 특정과목에 한하여 합동강의를 실시해 보는 인력활용 방안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겠다.

학과통폐합에 대한 문제는 이제 서서히 고려해 볼 시기가 왔다고 판단되며,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전문대학 교수들의 연구지원 수준이나 시설장비 투자 지원을 늘려야만 하는 당위성을 찾아 제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겠으며, 의학기술의 발전과 학문의 세분화 경향에 맞추어 보건계열의 교육연계 문제로서 학사학위를 받

을 수 있는 보건계학과로의 학제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1. 김경동, 이은숙 : 사회조사 연구방법. 박영사, 1988.
2. 김신복 : 기술대학 신설구상의 타당성 검토. 전문대학, 1993.
3. 대학요람 94~95 : 대전보건전문대학, 1994.
4. 윤봉자, 지계근 : 의학논문 작성과 문헌검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5. 윤중현, 이수동 : 현대 마켓팅론. 범한서적, 1990.
6. 전국전문대학 주소록 : 대학문화사, 1995.
7. 채서일, 김범종 :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법문사, 1989.
8.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 전문대학 평가제도 개선연구, 전문대학 1992.
9. Turner, KB., et al., : International directory of medical laboratory science education : european countries '94.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dical Laboratory Technology, 1994.
10. Porter ME : How competitive forces shape strategy. Havard Business Review, 1979 ; March-April : 137-145.
11. Shortell SM, Kaluzny AD : Organization theory and behavior. John Wiley & Sons, 1983.